

# 국제 문화교류 새 지평 열다

문화공간이름, ‘글로벌  
스테이지 시리즈’ 성료

전북 전주에 위치한 민간 소공연장 ‘문화공간 이름(이사장 이윤정)’이 지난 23~24일 열린 ‘이름 글로벌 스테이지 시리즈’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세계 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00석 남짓한 작은 공간이 민간 공연장의 한계를 넘어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이번 시리즈에는 한일합작 예술가 가족 그룹 ‘TENGGER’와 라오스 대표 오브제 마임극단 ‘체오봉(Cheo Bong)’이 무대를 장식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장르와 국경을 넘나드는 혁신적인 예술은 문화공간 이름의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3일 무대에 오른 TENGGER는 아날로그 신디 사이저 사운드와 몽환적인 영상미가 어우러진 퍼포먼스로 깊이 있는 사운드 여정을 선보였다.



전주에 위치한 민간 소공연장 ‘문화공간이름’은 지난 23~24일 ‘이름 글로벌 스테이지 시리즈’를 펼쳐 전 세계 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민간 공연장이 가진 잠재력과 확장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발돋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공연 직전 카오 니우 라오 극장과 문화공간 이름 간의 공식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며, 양국 간 장기적인 예술 교류와 공동 기획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무대에는 박정규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소방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 관계자, 홍승광 전북문화관광재단 본부장, 그리고 목영숙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부인까지 참석해 문화공간 이름의 새로운 도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의 글로벌 화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미술, 문학, 다원 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는 복합 콘텐츠를 제작해 온 문화공간 이름은 관객이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설계해왔다.

이윤정 이름 대표는 “이번 공연은 단순한 국제 교류가 아니라, 지역 예술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명할 무대였다”며, “지금까지의 ‘전주의 이름’을 넘어 앞으로는 ‘세계 속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문화공간 이름은 독창적인 세계 예술 콘텐츠를 100석 남짓한 무대에서 선보이며 관객들이 새로운 감각으로 예술을 ‘감각’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충훈 아나운서의 품격 있는 진행과 지평선 나인아트 서승아 대표의 헌신적인 통역 및 현장 조율도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예술은 연결이고, 무대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문장을 증명해 낸 문화공간 이름은 향후에도 동남아시아, 유럽 등 국내외 민간공연장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전북 지역 문화예술의 세계적 확산 거점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 추석 연휴 전주지역 박물관 프로그램 ‘풍성’

전주역사박물관 · 어진박물관, 10월 3~9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맞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낫달마실’을 주제로 한 해 중 가장 달이 밝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낫달 아래 마실하듯 박물관을 찾아 전통놀이마당과 전통체험마당, 가족영화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연휴 상설 체험’으로 전주역사박물관 앞뜰에서 직접 만들어 즐기는 제기차기, 딱지치기, 투호 놀이가 진행되고, 달빛 포토존도 운영된다.

특히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추석 특별 행사’로 박물관 1층 교육체험실에서 ‘명절

한복과 잘 어울리는 노리개와 청사초롱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지하 1층 강당에서는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가 상영된다.

또 박물관 1층 로비에는 달빛 아래 적어 보는 ‘낫달소원wall’이 운영되며, 소원을 빌고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한정 수량으로 진행된다.

이어 어진박물관은 ‘달토끼의 추석 대모험’을 주제로 추석을 맞아 전주 태조로에 놀러온 달토끼와 함께 사진관, 오락실, 공방, 문방구 등을 방문하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태조로사진관’에서는 인생세컷 포토부스를 운영하며, ‘태조로오락실’에서는 투호던

지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태조로공방’에서는 달토끼 키팅만들기 체험이 하루 300개씩 한정적으로 운영되며, ‘태조로문방구’에서는 두루마리에 소원 쓰고 종이 뽐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태조로공방’과 ‘태조로문방구’는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만 운영되며, 추석 당일인 6일에는 ‘태조로공방’에서 소원모빌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하재식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장은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면서 “박물관을 찾아주신 모든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역사박물관(숙고개로250)은 국립전주박물관 초입에 있으며, 어진박물관(태조로 44)은 전주한옥마을 경계전 내 위치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의 생활공예 한곳에... 제4회 전주공예박람회 문 열다

내달 3~4일 한지산업센터 일원서  
‘리빙’ 테마 사전공모 통해 선발  
35개 공방이 체험 프로그램 제공  
공예상품도 현장서 직접 구매 가능

전주의 생활 공예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예잔치가 다음달 3일 문을 연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에 따르면 오는 10월 3~4일 양일간 한지산업지원센터 일원에서 도내 공예작가들과 시민, 관광객들이 참여할 가운데 ‘제4회 전주공예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느림의 미학, 살림의 온도’를 주제로 판매 및 체험 부스 등 총 40여 개 부스로 운영된다.

로 ‘리빙(Living)’을 테마로, 사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35개 공방이 행사기간 동안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공예상품도 현장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공예작가들은 박람회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



들에게 △나만의 섬유 주머니 만들기 △캐릭터컵 만들기 △보자기 가방 만들기 △나무빗 만들기 △자개미니보관함 만들기 △한지 조각보 무드등 만들기 △도자기 풍경 만

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이들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족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미술·음악연주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고, ‘나무통본’과 전주공예품전시관 캐릭터 ‘호사원’ (호기로운 호사원)을 활용한 대형 포토존 등 다양한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됐다.

참여 공예작가들의 작품 전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도보 100여 미터 거리의 전주시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 건물 2층 ‘해보고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개막식은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 한지산업지원센터 대충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예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공예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며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과 연계해 치러지는 이번 공예박람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 함께 즐기고 공예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현장 안내판 및 재단 누리집(jc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1부 ‘강패와 장구’ (29)

### 왜 굳이 죽이려 하쇼?

- 오 상 근 -

동식은 금길을 따라 올라가 저 앞에 보이는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두드렸다. 어둠 속에서 타인의 차 문 두드리는 일은 동식의 비즈니스에 가끔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았지만 다른 때와 달리 뒷북이 뻗뻗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문이 내려가고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목소리로 추정했던 인상 그대로. 동식은 사내 말고 다른 자가 타고 있는지 눈동자를 굴러 빠르게 차 안을 살폈다. 박창수 혼자였다.

“타시오.”

동식은 주변을 둘러본 뒤 승용차 조수석에 올랐다. 이미 어둠이 깔려 차안도 어두웠다. 박은 전화로 자신이 일흔의 나이라고 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얼굴이 일흔의 나이를 먹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박은 동식이 차에 타자마자 가방에서 두툼한 대봉투를 꺼냈다.

“착수금이에요.”

곧바로 대봉투를 동식에게 내밀었다. 동식은 일단 봉투를 받아 안을 살폈다. 오만 원권 지폐가 든 작은 봉투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오천이요.”

오천이면 착수금으로 적은 돈은 아니다. 비즈니스를 완성하면 십억을 준다고 했는데 허언이 아닌 모양이다.

강용대란 자가 십억을 걸 만큼 박에게는 원한이 깊다는 건가. 박의 행색을 봐서 십억은 박에게도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일단 보이는 외양으로 바서는 그랬다. 그 나이 또래라면 누구나 입는 평상적인 가을 정과에 흔한 바지를 입고 있고 머리는 대머리였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을 재산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나이가 든 사람 일수록 절약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으니가. 박이 십억 적은 박수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외모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의 외모는 산전수전 다 겪은 말하자면 세상을 만만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용대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던데, 왜 굳이 죽이려 하쇼?”

동식은 시선을 앞으로 향한 채 말을 뱉었다.



박창수는 동식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시선을 차창 밖으로 보낸 뒤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눈을 동식에게로 가져왔다.

“내가 준다는 돈이 적소?”

이유를 물어보는 게 실례는 아닐 텐데, 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말을 돌리는 걸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박은 다시 눈을 차 밖으로 돌렸다.

“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니요?”

동식의 목소리가 차창에 부딪쳐 튕겨져 나갔다.

박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걸고넘어지려는 의도를 미리 생각한 것은 아니다. 박이 말을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지만 동식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 부피를 키웠던 것인데 동식은 애써 외면해 왔다. 그게 동식도 모르게 박을 보자 터져 나온 것이다.

“이유는 묻지 마시오.”

“왜 묻지 말라는 거죠?”

동식의 음성은 더 톤을 높였다.

살인범과 살인교사범은 공범이다. 형량도 같다. 교도소에서 배운 지식이다. 박창수가 살인을 교사했다면 강동식과 공범인 것이다.

범죄를 공모한다면 적어도 왜 죽여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동식은 칼이나 망치, 몽둥이 같은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는 연장이 아니다.

“그냥 해줄 수 없소?”

박의 목소리도 차창 밖으로 뛰어 넘어가고 있었다.

동식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 동식을 칼이나 망치로 여길 뿐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박이 동식에게 넘겨준 대봉투에 오천만원이 들어 있다. 일이 완성되면 십억을 채워서 준다고 한다.

### 지역 문화예술 진흥·새활용 문화 확산

전주문화재단,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과 ‘맞손’

협력 사업 기획·추진 사업 홍보 지원 등 적극 협력

협약 첫 사업으로 내달 중 문화예술교육 선보이기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지난 24일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센터장 이은주)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4층 도래도래터에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무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실 실장과 이은주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센터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 사업 기획 및 정책 협력 △추진 사업 홍보 지원 △수집된 빅데이터 공유 등 정보 제공 △기타 상호 협력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 경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다짐의 자리”라며 “자원 선순환을 실현하는 기관 및 예술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을 고려한 사업과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이 지난 24일 새활용센터 4층 도래도래터에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교육프로그램 ‘쓸모있는 예술활동-순환의 바느질’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